

KWC 2021 트로피 & 베스트컨트리
SHOWCASE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Korea Wine Challenge(이하 KWC) 2021의 트로피 와인과 베스트컨트리 와인이 다시금 한 자리에 모였다. 챌린지 최고의 영예를 자랑하는 이들 와인을 <Wine Review>의 독자들에게 보다 집중적으로 소개하기 위함이다. 이번 쇼케이스 행사는 급증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수상 와인의 특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수입사의 코멘트와 직접 심사를 진행했던 KWC 심사위원의 말들을 모아 준비한 이번 기사는 더욱 알찬 구성으로 독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글 <Wine Review> 편집팀 사진 장영수, Freepik 자료제공 각 수입사



Bodegas Castaño S.L
Castañó Santa

WS
 WINE & SPIRIT **WS통상(주)**

수입사 코멘트 | WS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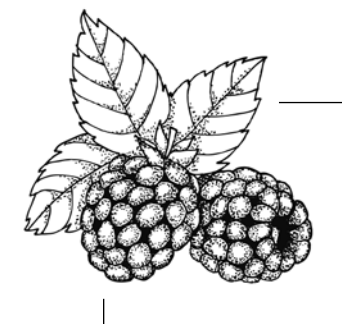
모나스트렐 품종의 선구자인 까스따뇨 와이너리는 그야말로 스페인에서 모나스트렐 품종을 가장 잘 알고, 와인을 가장 잘 만드는 와이너리라고 할 수 있다. 까스따뇨 산타가 KWC 2021에서 베스트 스페인 와인으로 선정되며 이들이 명불허전 스페인 최고의 모나스트렐 강자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이 와인은 가족 경영 와이너리인 까스따뇨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설립자의 어머니 이름을 그대로 따온 와인이자 그녀를 헌정하는 의미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모나스트렐 품종이 진하고 파워풀한 느낌을 준다면 까스따뇨 산타는 어머니의 따뜻함과 우아함을 담았다. 입 안에 머무는 동안 기분 좋은 산도와 분명하게 느껴지는 구조감의 밸런스 역시 뛰어나다.

KWC 심사위원 코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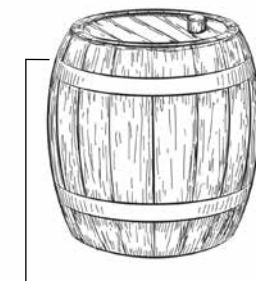
스페인 중동부 무르시아 고원이 있는 예플라 지역의 페루아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와인이다. 고도가 높은 포도밭에서 자란 포도는 긴 숙성과 발효 시간을 거친다. 이러한 포도로 빚은 와인의 프루티한 특징을 잘 풀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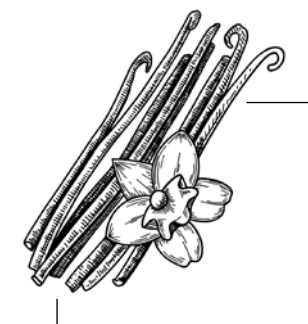
Tasting Note



블랙 베리의 신선한 과즙



자연스레 밴 스모키한 오크 향



달콤한 향신료의 뉘앙스





Brothers in Arms No.6 Cabernet Sauvignon



수입사 코멘트 | 유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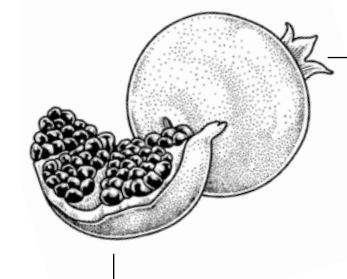
넘버 식스 까베르네 소비뇽은 호주 바로사 밸리나 맥라렌 베일 같은 유명한 와인 산지에서 나온 와인이 아닌 랑혼 크릭이라는 남호주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이다. 게다가 호주의 대표적인 품종으로 알려진 쉬라즈가 아닌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빚어졌다. 이렇게 주류가 아닌 이 와인이 선전한 데에는 빈티지, 가격 그리고 호주 와인이라는 세 가지 요건의 역할이 컸다. 브라더스 인 암즈는 언제나 일정 기간 동안 숙성한 다음 와인을 출시하는데 이번에 수상한 와인 역시 2016년 빈티지로 긴 숙성을 마치고 시장에 내놓았다. 접근성 좋은 가격과 쉽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호주 와인의 특징 역시 이 와인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

KWC 심사위원 코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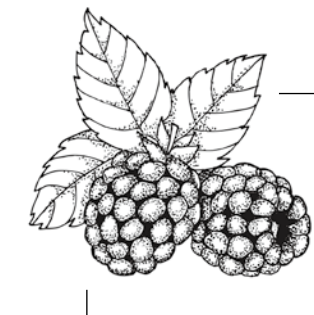
끈적하고 묵직하게 느껴졌던 호주 와인이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되는 와인이다. 날렵하면서도 섬세하게 빠지는 마무리감이 매우 인상적이다. 잔당감과 산도의 적절한 균형미는 물론 높은 완성도 역시 돋보인다.



Tasting Note



진한 가넷 색의 우아함



잘 익은 검은 과일의 아로마



독특한 야생 펜넬의 풍미



Château de l'Ou Infiniment de l'Ou

Lb

수입사 코멘트 | 엘비와인

샤또 드 루는 1998년에 세브린 보우리에(Severine Bourrier)와 필리프 보우리에(Philippe Bourrier) 부부가 설립한 와이너리이다. 세브린은 여성 와인 메이커로 섬세함과 부드러움을 와인에 고스란히 표현한다. 또한 샤또 드 루가 자리 잡은 루시옹 지역의 몽테스코 코뮌은 백악기 시대의 편암질 토양, 높은 고도와 같이 질 좋은 와인을 생산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을 담은 무공해 유기농 와인을 생산하는 것 역시 큰 특징이다. 인피니먼트 드 루는 입안 가득 느껴지는 블랙베리 계열 과일 향의 집중력 있는 맛을 보여줌과 동시에 세브린의 섬세한 터치가 인상적인 와인이다. 우아한 벨벳 질감의 탄닌과 부드러운 풍미 역시 매력적이다.

KWC 심사위원 코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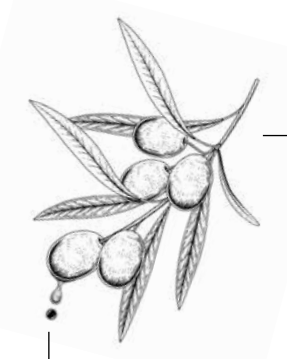
진한 시라 와인의 매력을 그대로 내뿜는 강렬함과 이와는 대비되는 섬세한 맛이 동시에 느껴진다. 성숙하고 농축된 질감과 향기가 과하지 않고 우아하게 다가온다. 남프랑스 페루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좋은 와인이다.



Tasting Note



농축된 블랙 커런트



블랙 올리브의 복합적인 아로마



은은한 야생 허브 향



Elias Tanios Touma & Sons

Château Héritage Family Reserve



수입사 코멘트 | 헤리티지코리아

고대 페니키아인들이 중동 지역에 처음 포도나무를 심고 와인을 생산했던 기원전 6,000년 전의 고대 문헌에 '향기롭고 유명한 레바논 와인'이라는 내용이 있을 정도로 레바논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와인 산지이다. 토양, 일조량, 고온 건조한 기후 등의 좋은 테루아가 선사하는 레바논 와인의 품미는 세계 유명 와인들에 견줄만하다. 그중에서도 사또 헤리티지 패밀리 리저브는 완벽하다고 판단되는 연도에만 생산하는 컬트급 와인으로 산미, 탄닌, 복합미가 선사하는 감동이 대단하다. 생산량이 적은 와인이지만 3년 전부터 직접 레바논을 방문해 설득한 끝에 2012년 빈티지 잔량을 전부 수입할 수 있었다. KWC 수상으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은 바, 앞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KWC 심사위원 코멘트

국내 소비자에게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산지인 레바논에서 만들어진 와인으로서 신선한 매력을 발산했다. 전 세계의 많은 프리미엄 와인이 출품된 KWC 2021에서 눈에 띄는 경쟁력을 갖추고 보다 뛰어난 면모를 보여주었다.



Tasting Note



올드바인 시라 블렌딩의 화룡점정



말린 과일의 힌트로 살아나는 과실 향



진한 과일 풍미와 탄닌이 주는 긴 여운



Gosset

Gosset Grand Rosé Brut



수입사 코멘트 | 레뱅드매일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와인을 만들어온 고세 샴페인 하우스는 페루이와 품종의 특성을 고스란히 담은 샴페인 생산을 철학으로 삼는다. 이들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젖산 발효를 하지 않고 만들어낸 최상 품질의 밸런스 좋은 샴페인이다. 그중에서도 고세 그랑 로제 브뤼트는 그간 디저트 와인으로도 생산되던 달고 진한 스타일의 로제 와인에서 발전한 모습을 보인다. 수잔 고세가 탄생시킨 이 와인은 달지 않고 미네랄리티와 산미가 좋은 가스트로노미(Gastronomy) 스타일의 로제 샴페인이다. 부드러운 산도와 우아한 과실의 향이 어우러지는 이 샴페인을 맛본 소비자들은 입안 가득 행복함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핑크빛 연어 색상과 잔을 타고 부드럽게 올라오는 버블이 주는 로맨틱한 분위기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KWC 심사위원 코멘트

최근 국내 시장에서 로제 및 로제 스파클링 와인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이 같은 업계 상황에 딱 들어맞는 고세의 로제 샴페인은 산도와 당도의 조화가 적절한 균형을 보인다. 기포의 지속성 역시 훌륭하며 향긋한 아로마가 우아하게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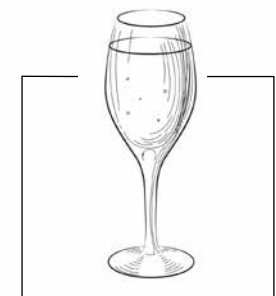
Tasting Note



장미꽃잎처럼 부드러운 질감



달콤한 딸기의 아로마



입안을 두드리는 섬세한 버블



Moncaro

Moncaro Marche Rosato Organic



수입사 코멘트 | 르셀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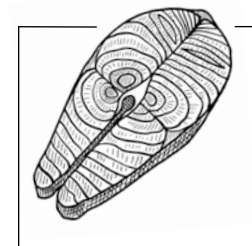
몬카로는 1980년부터 유기농법으로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 친환경 와이너리이다. 몬카로 마르께 로사토 오기닉은 코네로 산 (Monte Conero) 자락의 바다가 보이는 포도밭에서 난 몬테폴치아노로 빚은 로제 와인이다. 이탈리아 북동쪽에 위치한 코네로 산은 양질의 몬테폴치아노 재배에 최적의 테루아를 제공한다. 낮과 밤의 큰 일교차 덕분에 매우 좋은 산미와 집중력 있는 과일 향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코네로 산이 해풍으로부터 포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 해안가와 가까운 곳에서 자란 몬테폴치아노로 만든 이 와인은 해산물과의 페어링이 아주 좋다. 특히 이 지역의 특산물인 홍합과 좋은 궁합을 보이므로 다가오는 한국의 홍합 제철에 함께 마시기를 추천한다.

KWC 심사위원 코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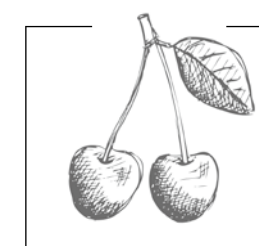
로제 와인 심사 과정에서 특히 눈에 띄는 맛과 훌륭한 품질을 보여줬다. 풍부한 과일 향과 좋은 밸런스를 갖추고 있으며 흔히 볼 수 있는 로제 와인의 색과 조금 다른 살몬 핑크빛의 색상이 차별화된 와인이다. 누구나 부담 없이 마시기 좋은 맛과 향을 지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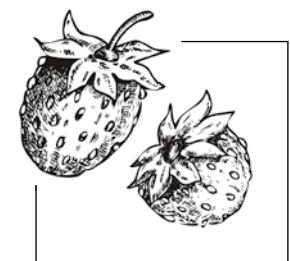
Tasting Note



은은한 살몬 핑크 색상



신선한 아생 체리 향기



작고 붉은 과일에서 오는 새콤달콤함



Pillitteri Estates Winery

Pillitteri Vidal Icewine Reserve



수입사 코멘트 | 하이트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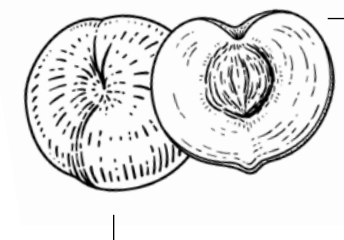
필리터리 이스테이트는 현재 3대의 가족이 함께 운영 중인 가족경영 와이너리이다. 다양한 와인 평가에서 900여 개의 수상 경력을 자랑하며 VQA 인증을 받은 정통 캐나다 아이스와인의 명가로 잘 알려져 있다. 캐나다의 품질 인증 제도인 VQA는 오직 영하 8°C 이하의 온도에서 혹독한 겨울을 인고해낸 와인에만 주어지는 훈장이다. 인위적으로 냉동시킨 포도를 사용한 유사품은 VQA 인증 마크가 없거나 아이스와인(Icewine) 표기가 불가해 Ice와 Wine을 띄어서 표기한다. 이 경우 천연 아이스와인이 아닐 수 있으니 잘 살펴 선택하기를 추천한다. 필리터리 비달 아이스와인 리저브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아이스와인으로 영하 9~10°C에서 수확해 압착 후 와인의 20%를 프렌치 오크에서 발효시켜 빚는다. 다양한 아로마의 복합미, 단맛과 산미의 빼어난 균형미가 특징이다.

KWC 심사위원 코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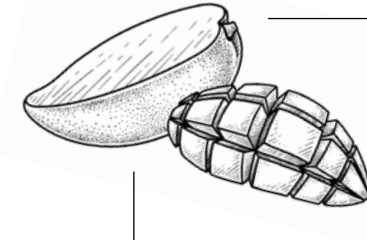
필리터리의 아이스와인은 지속된 심사로 지쳐있던 혀를 달래주고 행복한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다. 고급스러운 황금빛에 우아하게 피어나는 향과 입 안을 가득 채우는 달콤한 맛이 정통 아이스와인의 매력을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Tasting Note



상큼한 산도를 가진 복숭아



세련된 열대과일의 풍미



우아하게 퍼지는 꿀의 단맛



Pine Ridge Vineyards

Pine Ridge Napa Valley Cabernet Sauvignon

WS
WINE & SPIRIT **WS통상(주)**

수입사 코멘트 | WS통상

파인 릿지 빈야드는 1978년 스타크립 디스트릭트의 6만 평의 포도밭에서 시작된 와이너리이다. 러더포드 포도밭에서 만들어진 까베르네 소비뇽을 처음으로 출시한 이후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후 각기 다른 개성의 포도밭을 구매해 개별 산지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빚어낸 나파 밸리 와인의 명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파인 릿지 나파 밸리 까베르네 소비뇽은 힘과 우아함이 돋보이는 스타크립, 검은 베리류 향이 강하고 탄닌이 좋은 오크빌, 체리처럼 붉은 베리류의 향이 많아 상큼한 러더포드 포도밭의 장점들이 모여 탄생했다. 나파 밸리의 떼루아를 순수하게 표현함과 동시에 산지마다 다른 포도 맛으로 조화로운 균형을 그려낸 와인이다.

KWC 심사위원 코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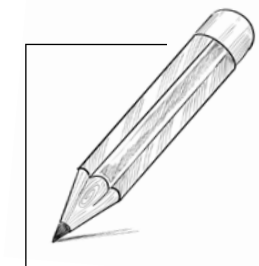
KWC 2021 트로피 레드 부문에서 최종 후보로 남아 끝까지 심사를 고민하게 했던 와인이다. 뛰어난 밸런스와 복합적인 매력이 잘 살아있다. 섬세한 블렌드로 빚어낸 나파 밸리 와인의 정수를 담아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Tasting Note



체리, 딸기의 향과 바닐라 크림의 달콤함



갓 깎은듯한 연필의 흑연 아로마



길게 이어지는 구운 견과류 풍미



Trapiche

Trapiche Medalla Cabernet Sauvignon

 **금양인터내셔널** 수입사 코멘트 | 금양인터내셔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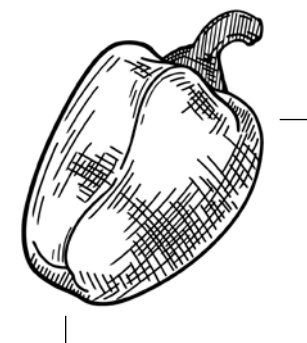
메달라는 아르헨티나 No.1 와이너리 트라피체가 1983년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대표 프리미엄 와인이다. 세계 굴지의 여러 시상식에서 수많은 메달을 수상한 트라피체의 훌륭한 와인을 상징하고자 '메달 수상자'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탄생시킨 만큼 트라피체의 최상급 와인 메이킹과 아르헨티나의 청정 테루아를 느낄 수 있다. 이번 KWC 2021에서 베스트컨트리를 수상한 이 와인은 아르헨티나 멘도사 프리미엄 까베르네 소비뇽을 18개월간 프렌치 오크통에서 숙성하여 입 안에서 견고한 탄닌이 느껴진다. 이와 더불어 짜임새 있는 구조감과 스모키한 아로마가 강렬한 풀바디 와인의 특성을 보인다.

KWC 심사위원 코멘트

오랫동안 아르헨티나를 대표해왔던 말벙 품종이 아닌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빛은 와인이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며 심사 과정에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안정적인 구조감과 적당한 무게감이 주는 여운이 인상적인 와인으로 아르헨티나 와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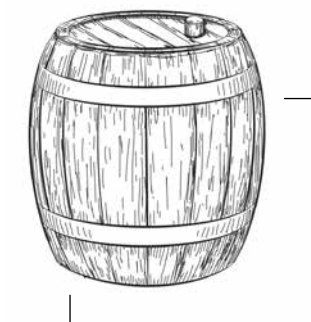
Tasting Note



피망의 스파이시한 향



신선한 담뱃잎 뉴앙스



오크의 섬세한 터치